

18. 죽은 정통주의

요한복음 5장 37절~40 "37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거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용을 보지 못하였으며 38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의 보내신 자를 믿지 아니함이니라 39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40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신앙의 본질은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안다는 말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왜냐하면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아는 것이 신앙의 핵심이라고 말할 때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데 문제는 하나님을 안다는 말이 무슨 말이라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에 관해서 신학적으로 잘 알면 그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에 관한 지식입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성경이 말하는 살아계신 인격체이신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아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알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셔야 하고,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과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길을 우리에게 계시하실 때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으며 하나님을 경험으로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신앙의 본질입니다.

하나님에 관해서 성경적으로 아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아닌데 그것은 하나님에 관한 지식인데 하나님에 관한 성경적인 지식을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잘못 이해하는 것이 죽은 정통주의입니다. 그것은 인격체이신 하나님과의 교제를 하나님에 관해서 교리적으로 아는 것으로 대체해 버린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교리가 인격체를 대체해 버린 것입니다. 이것은 죽은 정통주의로서 전적으로 교리적으로는 정통일지 모르지만 전적으로 쓸모없는 생명이 전혀 없는 죽어 있는 것입니다.

죽은 정통주의라는 말은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사용한 말입니다. 수 년 전에 돌아가셨지만 세계적으로 아주 유명한 설교자였지요. 그분이 부흥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죽은 정통주의의 특징을 찾아 보기를 원합니다. 가능하면 제가 오늘 이 설교는 책에 있는 내용들을 이렇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부분을 살펴보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살펴보느냐 하면? 이러한 특징들이 우리의 삶 속에 있으면 우리가 지금 죽은 정통주의 가운데 빠져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보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바른 신앙으로 전환해야 할 필요를 보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죽은 정통주의가 뭐냐? 저는 이것을 율법주의라고 말합니다. 똑 같은 것인데요, 말씀드린 대로 죽은 정통주의는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잘못 이해 한 것입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부흥 책, 80쪽)

이 항목에 들어 있는, 이 항목이라는 것은 교리적으로 정통인 무리들 가운데 잘못되는 것을 말합니다. 들어 있는 제일 되고, 가장 우선적인 문젯거리는 인격 자신과 더불어 관계를 맺으려 하기 보다는 그 인격에 관해서 관심을 가지는 것입니다. 정통적이지 못한 사람들의 문제 거리는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에 관한 교리에 있어서 잘못돼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지금 지적하는 잘못된 교리, 참된 교리, 인격에 관한 참된 교리를 인격이 서야 할 자리에 세우는 무서운 위험입니다.

여기에서도 하나님이 인격체이신 것을 압니다. 그리고 인격체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매우 올바르게 압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인격체이신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교제를 갖는 것이 우리 신앙인데, 하나님에 관해서 교리적으로 잘 알면, 그것이 곧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잘못 이해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

하면 교리가 혹은 의식이 본질을 대치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정말 무서운 것입니다. 그것은 복음적인 사람들, 정통적인 사람들이 흔히 걸려 넘어지는 매우 흔한 함정입니다. 정통적이면서도 죽어 있을 수 있습니다.

왜요 교리에서 생명이 없거든요. 생명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습니다.

교리의 목적은 교리 자체 있는 것이 아님을 인식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교리는 다만 그 인격을 알게 하고, 이해하게 하고 그 인격과 교제하게 하고 그 인격이 교제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인도해 주는 구실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죽은 정통주의에 대해서 말하면서

사실상 죽은 정통은 이단 만큼 나쁩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죽은 정통은 아무런 소용이 쓸모가 없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자 이렇게 죽은 정통주의는 하나님에 관한 교리를 하나님과의 관계를 교리로 관계로 대치해 버린 것인데, 여기엔 특징이 있습니다. 율법주의 특징이 그대로 나오죠. 그런데 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 죽은 정통주의의 특징을 몇 가지 말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는 뭐냐? 자만심, 자족감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사모함이 없는 마음입니다. 갈급함이 없는 마음입니다. 이 책 93쪽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 죽은 정통을 가장 잘 요약할 수 있는 말은 자만이라는 말입니다. 혹은 쟁취함라는 말을 사용하기를 주저 합니다. 아마 우리는 둘을 묶어서 웬만한 체 하며 자만해 한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족감, 자만심이 가장 전형적인 특징이라는 것이죠. 그 대표적인 예가 라오디게아 교회와 같은 교회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스스로를 뭐라고 생각했느냐면? 우리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함이 없다 그랬습니다. 왜 그러면 이러한 자존감, 자만심이 생기는가? 신앙에 대한 이해를 외 부적인 것에 두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몇 가지 규례와 규칙을 지키는 것으로 이해하기 때문에 신앙을요. 혹은 신앙을 이렇게 규례와 규칙을 잘 지킴으로 하나님의 복을 잘 받는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라오디게아 교회는 그 지역의 산업이 발달해서 부유한 교회였고 성도도 부유했습니다. 그들은 생각하기를 자기들은 하나님을 잘 믿어서 복 받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정도면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함이 없다는 것이죠. 그 마음 속에 자만심이 있습니다. 그 마음속에 자족감이 있습니다.

또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에 대해서 이해하기를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대로 주일성수 잘하고, 십일조 잘하고,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목사님 말씀 잘 듣고, 나름대로 새벽기도 빠지지 아니하고 하루에 한 단어씩 읽고 또 기도 열심히 하고 이거 잘하면 신앙생활 잘 한다고 생각하면 그거 잘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신앙생활 잘한다는 그러한 자족감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자족감, 이 자만심이야 말로 우리가 죽은 정통주의, 율법주의에 빠져 있다는 전형적인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신앙을 살아계신 인격체이신 하나님과의 실제적이고 살아있는 교제에 둔다면 우리는 절대로 이 자만심에 빠질 수 없습니다. 빠질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참다운 신앙에 대해서 말하면서 혹은 부흥의 때는 우리 신앙이 올바르죠. 그것에 대해서 말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면서 오늘 제가 그분이 말한 내용을 가능하면 그대로 살펴본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분 이렇게 말합니다. 116쪽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하나님을 추구하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찬탄해지고 하나님의 모든 찬만으로 찬탄해지기를 추구하라는 것입니다. 체험 자체가 아닙니다. 그분을 체험하고 그분을 아는 문제입니다. 성경에 나타나는 사람들을 그분을 알았습니다. 그들은 그분에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임재를 인식했습니다.

그러면서 50년 전의 영국 상황에 대해 오늘날 우리 한국 상황하고 너무 비슷해요.

그러나 오늘날 우리의 생각에서 그 개념조차 사라진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분은 계속해서 그 다음 117쪽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은혜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안에서 자라나야 합니다. 꺾대를 향하여 과거는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뛰어가야 합니다. 사도 바울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권한에 참여함을 알려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러 하노니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있어서 문제 거리는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에게 집중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에게 통제를 받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주님 자신을 추구하는데 어떠합니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의 임재가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것 그것이 참된 기독교입니다. 부흥시에 언제나 하나님께 사용되었던 사람들이 바로 그것을 추구했습니다. 여러분은 그것을 위해서 제 말을 들을 필요가 없을 정도입니다. 언제나 부흥의 예비단계가 있게 마련입니다. 크게 사용되었던 사람들은 자기들이 라오디게아 사람들과 같다고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께 나아가 예수님께 나아가 그분을 찾았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203쪽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회의 상태를 시험하는 시금석은 교회를 신약이 말하는 교회 상에 비추어 보는 것입니다. 아니면 개혁이나 부흥이 일어났던 시기나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위대한 영적인 표징으로 나타났고 하나님의 임재가 교회 가운데 있었던 시기에 교회가 어떠한 모습을 취했는가를 살펴보면서 거기에 현재의 교회 상태를 비추어 시험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를 비춰보는 것은 ‘우리교회’, ‘다른 교회’를 비춰보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아! 우리 교회는 지금 성장하고 있는 교회다. 요즘 교회가 성장하기 힘든데, 몇 년 만에 몇%의 성장을 했고, 우리교회는 지금 성도가 얼마고, 우리교회는 예산이 얼마고’ 이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라오디아교회가 그래서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함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교회를 비교해 보는 것은 성경이 말하는 교회 상과 오늘날의 교회를 비춰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부흥으로 임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 하시며,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심이 그 가운데 운행하시는 그 시대와 비춰보는 것입니다.

교회를 비춰보는 것은!

그러면서 208쪽에서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것이 바로 영적 총명의 진수입니다.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이루어야 할 입장입니다. 여기에 갑자기 각성을 하여 이 엄청난고 심오한 인식을 하게 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에 보내시겠다고, 천사를 통해서 가나안을 주시겠다고, 그러나 하나님은 임재로 동행하지 않겠다고 말씀했을 때, 가나안과 젓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자신들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하나님이 없으면 그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의미가 없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는 것! 그것이 영적 총명의 진수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분은.

‘제가 던지는 질문은 하나님이 거기 함께 계시느냐? 진실로 그분이 우리 가운데 계시느냐? 우리가 올바르게 그분의 영광스러운 임재를 인식하느냐? 깨닫느냐? 느끼느냐? 보느냐?’ 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이 사람들에게 문제되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가나안이 무슨 소용

이 있으며, 젓과 꿀이 무슨 가치가 있습니까? 우리는 이러한 원수들의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당신을 원하나이다.’ 말했다는 거죠.

‘시편 기자는 말합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그는 축복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성공적인 복음전도자였다. 나는 대단한 일을 많이 했다. 그러나 나는 만족하지 않았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에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려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러 하노라.’

‘제가 묻는 것은 이것입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하시는 말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아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속에 계십니까? 하나님이 진영, 교회 가운데 계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지만 하나님은 멀리 계시고, 다만 그 천사와 지도자를 통해서만 능력과 힘을 주고 계십니까? 문제는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어떤 관계이며, 인격적으로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냐는 것입니다.’ 라는 것이죠.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죽은 전통주의에 빠지면 자만심이 있습니다.

반대로 올바른 신앙 가운데 있으면 인격체이신 하나님을 더욱 더 알기를 원하여, 갈망하고, 목마르고, 배고픔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 지금 인격체이신 하나님 그 분 자신을 향한 갈망함이 없으면 우리는 죽은 전통주의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의식이 본질을 대체해 버린 것입니다. 그 상황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특징이 뭐냐? 보편적인 메시지입니다.

이 분이 말한 특징은 자만심 아래 말하고 있습니다만, 구태여 나눠 설명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보편적인 메시지입니다. 신앙이 타락할수록, 죽은 전통주의에 빠질수록 사람들은 보편적인 메시지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95쪽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한 사람들은 언제나 보편적인 메시지라 할 수 있는 것을 매우 좋아합니다. 그들은 특별한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보편적으로 약간 고무시켜주는 것을 원하며, 보편적으로 자기들에게 도움을 주는 것을 원합니다. 그들이 좋아하는 것은 흥미로운 일입니다.’

무슨 말인가? 그들은 종교를 자기들의 삶에 하나의 선한 관점을 제공해 주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종교를 자기들의 삶 속에 하나의 유익을 주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종교를 통해 보편적으로 자기들 삶을 고무시켜주고, 자기들의 용기를 북돋아주고, 자기들을 위로하고, 자기들 삶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것들을 원합니다.

이것이 죽은 전통주의의 특징입니다. 신앙의 잘못된 특징입니다.

때로는 인물연구를 통해서, 때로는 QT들을 통해서, 또한 여러 가지 주제별 설교를 통해서 원하되, 그들이 원하는 것은 보편적인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자기들의 삶에 유익을 줄 수 있는 보편적인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보편적인 메시지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탐사당하고 간섭당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겁니다.

현미경으로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듯이, 하나님의 말씀의 현미경으로 우리의 삶이 적나라하게 드러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해부되어져서, 그 앞에 있는 우리 속에 있는 치부가 드러나고, 우상숭배가 드러나고, 우리 속의 욕심과 탐심이 드러나고, 세상 사랑이 드러나고, 거짓된 동기

와 가치관이 드러나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too heavy' 너무나 무겁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신앙이 타락할수록 그렇습니다.

이사야서 30장에 보면, 이사야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선지자들에게 '우리에게 예언하지 말라', '우리에게 정직한 말을 하지 말라', '우리에게 부드러운 말을 하라' 그들은 주장했습니다. 신앙이 타락할수록 그렇게 돼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로이드 존스 목사님도 예레미야서에 평화~ 평화~를 외쳤던 거짓 선지자들의 얘기를 합니다. 왜 평화를 외칩니까? 사람들이 평화를 듣기 원하기 때문입니다.

평화는 오늘날로 말하면 축복입니다.

반면에 여러분, 우리들이 살 수 있는 길은 신앙의 본질로 돌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사야서를 보십시오. 예레미야서를 보십시오. 에스겔서를 보십시오. 호세아서를 보십시오. 다른 성경들도 보세요. 우리가 보기에는 너무나 강한 메시지 같아요. 하나님께서 "내 말로 저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저들을 죽였다" 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강한 메시지 같아요.

그러나 그것이 살길입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이 탐사되어서 우리 속에 우상숭배가 무엇이며, 나뉘진 마음이 무엇이며, 하나님을 대체하는 것들이 무엇이고, 무엇이 죄악이고, 무엇이 하나님의 길인가가 비춰져서 우리의 삶이 근본적으로 조종되어지고,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길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전존재로 사랑하는 사람으로 돌이켜질 때, 그 때 생명이 있습니다. 그것이 사는 길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러한 길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것을 원치 않습니다. 그들은 신앙이 타락했기 때문에 자기들에게 보편적인 도움을 주는 보편적인 메시지를 원했습니다. 그들은 평화의 메시지를 원했습니다.

오늘날도 그런 것 같습니다.

세 번째, 형식적인 예배.

신앙이 타락할수록 예배가 형식화 됩니다.

여기 97쪽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한 사람들의 종교나 예배는 생명력 있는 것이 전혀 없습니다. 그들은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집에 가지만 하나님을 만날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기다린다는 마음도 없습니다. 예배시간에 어떠한 일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생각조차 하지 않습니다. 아니, 우리는 주일아침마다 언제나 이러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관례가 되었습니다. 그것이 습관입니다. 그저 그렇게 하는 일이 옳은 일인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갑자기 자기 백성들에게 찾아오셔서 그들에게 임하시고, 하나님이 성결해서 사람의 존재자체가 사로잡힘을 당하고, 하나님께서 가까이 계시다는 것의 의식하고, 인식하고, 깨닫고, 하나님의 능력을 느낄 수 있는 것.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전혀 생각지도 않습니다. 모든 것이 형식적이고, 그저 모든 것이 잘 되어 간다는 식으로 자만에 빠져 있는 모습입니다.’

우리의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예배에 올 때 하나님 만나러 오셨습니까? 하나님 만나실 것을 기대하고 오셨습니까? 아니면 주일날 되었기 때문에 그저 여러분 하시는 대로 습관을 따라 왔습니까?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이 자리에 임하시기를 진심으로 기다리십니까? 사모하십니까?

설레 이는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그게 아니라면 죽은 정통주의 가운데에 빠져있는 것입니다. 빠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가 형식화 되는 거. 죽은 정통주의의 전형적인 특징입니다. 저는 지금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사모하는 설레 임이 그렇게 많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찬양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갈급함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임해서 그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앞에 우리의 존재 전체가 사로잡힘을 당하는 것을 사모하고 기다리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반면에 하나님 부흥이 임할 때 예배는 어떠했는가? 하나님 부흥이 임할 때에 예배는 거기 활력이 넘쳤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넘쳤습니다. 265쪽에서 이렇게 얘기 합니다. 하나님 부흥이 임할 때, 우리 신앙이 올바를 때 이렇게 말해도 됩니다. 진실로 첫 번째 요점은 교회가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하게 되고, 자기들 가운데 그 능력을 의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예배는 절대로 형식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예배는 절대로 습관적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예배는 절대로 하나의 의식으로 전락해서도 안 됩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1부 예배를 우리가 9시부터 예배를 드립니다. 찬양과 경배를 드리고 말씀을 전하고 또 시간 나는 대로 성령사역을 하고 어떤 분들은 1부 예배부터 계신 분들도 계시고 1부 예배 참석하시고 대부분은 가시고, 또 그리고 2부 예배가 시작됩니다. 우리 찬양하는 팀도 어떤 때는 1부 예배에 찬양하고 2부 예배에 찬양을 합니다. 자, 1부 예배 거의 한 시간 반 드립니다. 그리고 30분도 채 안 있다가 2부 예배 시작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 싸움은 한 가지는 2부 예배를 시작하면서 여태까지 모든 것을 다 잊어버리고 새로운 마음으로 주님을 온 마음으로 추구하며 주님 앞에 서는 것, 이게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으면 예배는 형식적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예배는 습관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예배는 하나의 의식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1부 예배에 나와서 2부 예배까지 계신 분들은 많지 않습니다. 소수를 제외하고는 그런데 여러분이 2부 예배에 처음 나오실지는 몰라도 우리의 예배가 그렇게 하나님을 사모하는 것 같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얼굴을 뵈기를 열망하는 열망이 우리 속에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모습에서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인식하는 것이 예배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언제 임재하시는 지 아십니까? 간단합니다.

“너희가 나를 찾으면 찾고 찾으면 만난 봐 되리라 말씀하셨고 너희가 내게 가까이 하면 나도 너희에게 가까이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게 아니라 우리가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 그분 자신을 구하고 그분 알기를 구하고 그분의 영광의 임재를 인식하기를 원하고 경험하기를 원하고 그분의 뜻과 의중을 알기를 원하고 그분을 사모하여 그분을 구할 때 그분은 오십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 그분을 사모하고 갈망하고 배고픔이 없으니 그분이 임재하실 리가 있나요. 은혜로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사모하는 갈망이 식었다 할지라도 은혜로 우리 가운데 한두 번 임하셨을 지는 말라도 우리가 돌이켜 진실로 주님을 알기를 사모하고 열망하지 아니하면 주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지속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신앙의 본질이 무엇이고 그것은 인격체이신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 것을 수없이 많이 살펴봤지만 그것이 하나의 지식입니다. 오늘날 그것을 아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처럼 지식이 인격체를 대체하여 우리 속에 하나님을 사모함이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예배가 형식화 되어 갑니다. 오늘 아침에 1부 예배 시간에 하나님이 그것을 간절히 기도하시게 하는 것 같더라고요. 새물결 선교회 전체를 위해서 그 방면에서 가장 앞장서서 가는 사람들이 우리들입니다. 새물결 선교회 전체를 위해서 그리고 목사님들을 위해서 새물결 선교회에 속한 모든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하나님을 향한 신선한 기름부음을 부어주세요. 우리에게 주를 향한 새로운 갈망을 부어주세요. 왜요? 우리가 주님을 찾고 구하는 그 마음이 식어졌기 때문이에요. 그 열망이 식어졌기 때문이에요. 그 사모하는 설레 이는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이 식어졌기

때문예요. 그래서 우리가 섬기더라도 주님을 향한 그 깊은 사모하는 설레 이는 마음, 아버지 일이 곧 내 일이기 때문에 섬기는 그 설레 이는 마음에서보다는 완전히 의무적인 것은 아니로되 어느새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당연한 자세로 섬기는 그러한 것으로 치닫고 있기 때문예요. 로이드존스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능력과 임재를 의식하는 일이 있습니다.” 인식하는 일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함께하시는지, 임재가 우리 가운데 마음껏 흐르는지, 임재가 우리 가운데 거두어져 있는지를 깨닫는다 그 말이죠. 그러면서 이 영광의 임재 가운데 때로는 현상이 따라 올 수 있다고 얘기 합니다. “현상이 따로 올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능력과 영광을 지각하는 일이 너무나 커서 사람들은 그때마다 땅바닥에 굴러 넘어지기도 합니다. 자기들이 예측하지 못했던 기쁜 소식을 갑자기 듣게 될 때 사람들이 문자 그대로 기절을 하는 경우를 여러분은 들을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사람들이 이 영광스런 임재를 체험할 때 가끔 그것을 그 육적인 체질로 감당하기가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에 대하여 말하거나 시간을 머물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위대한 일, 하나님에 대한 의식, 하나님을 인식함, 성령의 주관과 임재를 느끼는 일은 강조해야 합니다.” 또 이렇게 얘기 합니다. “하나님 부흥이 임할 때마다 교회가 큰 기쁨과 찬양의 기쁨으로 가득 차게 된다는 것입니다. 큰 기쁨과 주 예수그리스도와 하나님을 향한 큰 찬미와 이 큰 구원을 자랑하고 그들이 받은 새 생명을 높이며, 하늘에 대한 생각으로 넘치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성령을 교회에 부어주실 때 바로 이 모습이 너무나 자주 반복됩니다. 갑자기 주께서 그들 가운데 임하신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그것은 큰 기쁨과 찬미와 감사를 가져왔습니다. 교회가 부흥의 상태에 있을 때 사람들에게 찬미를 하지 말라고 그들의 말려서는 안 되고 그들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으로 충만해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강조하고자하는 또 다른 것은 예배의 요소, 감사의 요소, 다같이 큰 자유로움을 누리는 요소입니다. 예배에 감사입니다. 다시 하나님께서 부흥을 보내실 때 함께 예배하자, 찬미하자, 말쑥을 숙고하자고 권면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그러한 일을 열심히 행하게 될 것입니다. 밤낮 와서, 여러 시간을 머무를 수 있고 심지어는 아침이 될 때까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여기 처음에 일어났던 일과 똑같이 몇 개월 동안 밤마다 계속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찾고 추구하고 하나님을 구하게 될 때 예배가 활력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향한 사모함이 있습니다. 갈급함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찾고 사모하게 될 때 하나님의 영광으로 우리를 방문하셔서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시고 계시하시고 만나주시는 그런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죽은 정통주의’ 란 장에서 로이드존스 목사님은 죽은 정통주의의 전형적인 특징을 열심을 싫어하는 것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열심을 싫어함. 여기 열심을 싫어한다는 것은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다루는 것이 두 구절을 다루고 있는데요, 하나는 고린도전서 14장에 보면 “너희는 모든 것을 적당하게 하고 질서대로 하라” 또 다른 구절은 “너희는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이 두 구절을 가지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이 말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찬양할 때 눈물을 흘리고 두 손을 들며 찬양할 때 많은 사람들이 그러합니다. 예수를 믿어도 저렇게 믿는다고. 점잖지 못하게. 주일 대예배 시간에. 그분들이 이해하는 것은 자기의 마음이 어떻든지 점잖게 앉아서 아무런 과다한 표현도 없이 찬송을 그저 점잖게 잘 하면 되는 겁니다. 이러한 종류의 열심을 말합니다. 지금 여기서 말하는 열심은.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는 가 하면 죽은 정통주의 신앙이 잘못되면 나타나는 전형적인 특징 중의 하나가 열심을 싫어한다는 겁니다. 열심을 싫어한다는 겁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98쪽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죽은 정통주의의 특징은 앞의 특징에서 직접 연유하는 것입니다. 그 특징은 열심을 싫어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가장 중요한 주제입니다. 만일 보다 더 성경적인 용어로 그것을 표현하기 원한다면 저는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성령을 소멸하는 죄를 짓고 있다는

것입니다.’ 열심을 싫어한 나머지 성령을 소멸하는 죄를 짓고 있다는 말이죠. ‘열심을 혐오하는 것은 성령을 소멸하는 것입니다. 교회사와 친밀한 사람들, 특히 부흥의 역사를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은 열심을 비난했던 것이 부흥의 시기에 있어서 가장 활동적인 사람들에게 가장 큰 거침돌이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조지 휘트필드는 감독들에게 열광주의자라는 비난을 받으며 그들의 비난에 답변해야 했습니다. 그들은 말했습니다. 자, 여기를 좀 보라. 우리가 당신의 교리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교리를 설교하는 당신의 방식이다. 당신이 하고 있는 방식이 문제다.’ 무슨 말이냐 하면 이 말입니다. 조지 휘트필드는 아주 유명한 분입니다.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였던 사람입니다. 설교를 들은 다음에 세상의 삶을 버리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혹은 하나님 앞에 헌신할 사람 앞으로 나오라고 이렇게 초청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앞으로 나왔는데 하나님의 성령께 감동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그들이 꼬꾸라졌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사람은 죽은 사람처럼 누워서 실신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눈물 흘리면서 과거의 삶을 회개하기도 하고 자기 마음 속에 있는 그릇된 마음의 자세를 회개하고 통회하기도 했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두고 비방했습니다. 당신이 전하는 메시지는 성경적이라는 거죠. 그런데 당신이 전하는 방식이 맘에 안 든다는 겁니다. 요한 웨슬레 시대도 그랬습니다. 오늘날 우리 가운데서도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전하는 메시지를 가지고 문제를 삼는 사람은 여태까지 한 사람도 못 봤습니다. 그럼 왜 사람들이 기도해주면 쓰러지고 기도해주면 왜 이런 일들이 나타나는가 하는 거죠. 물론 기도해주면 쓰러지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그들이 하는 얘기죠. 그러나 하나님의 만지심을 통해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삶에서 근본적인 회개가 일어나고 지난 여름에 부산 집회만 하더라도 너무 너무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둘 다 목회자인데 두 자매가 40년 동안 용서하지 못했던 골이 해결됐다니깐요. 40년 넘게.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둘 다 목회자인데 자매인데. 마음 속에 있던 미움 나름대로 용서하려고 했지만 안 됐는데 하나님의 성령께서 비취시며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 악한 세력을 파하시고 우리가 회개하며 돌이키고 대적하게 될 때 중심에서 상대방을 받아들이고 용서하는 일은 너무 너무 소중한 일이죠. 40년 동안 가지고 있었던 골이 메워졌다니깐요. 그렇게 용서하려고 많이 노력했지만 이 사건 터지고 저 사건이 터지면 다시 용서하지 못해서 그용서하지 못했던 것으로 인해 너무 너무 괴로워했던 그 사람이 하나님이 만지시니까 진심으로 그 사람을 부둥켜안고 용서하게 되는, 너무 너무 자유롭게 되는, 기쁘다고 저에게 개인적으로 얘기하면서 너무 너무 감사하다고, 제가 한 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한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얘기하는 아름다운 일들 그 아름다운 일들을 전혀 보지도 않은 채 싫어하는 거죠. 열심을 싫어하는 겁니다. 심지어 요한 웨슬레의 경우도 말합니다. ‘요한 웨슬레도 똑같은 비난을 받았다.’ 심지어 자기 어머니는 기도하는 분이었는데 그 수산나한테도 요한 웨슬레는 책망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질서대로 하라’ 는 것을 살펴봅니다. 그러면서 몇 가지를 얘기하는데요 제가 간단히 언급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이 저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첫째, 성경 고린도전서 14장에 모든 것을 적당하게 하고 질서대로 하라는 것은 오늘날 우리가 이해하는 것과는 다른 이해라는 거죠. 그 배경을 이해해야 한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가? 고린도교회는 예배가 오늘날처럼 그 정해진 순서에 따라 그 순서에 잘 맞추면 되는 예배가 아니었습니다. 고전 14장에 나오듯이 성령께서 주가 되셔서 어떤 사람을 통해서 말씀을, 어떤 사람을 통해서 예언의 말씀을, 통역을, 어떤 사람을 통해서 방언을, 그러니까 성령을 통해서 자유롭게 움직였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방언한다고 하면서 자기네들끼리 방언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썰라 썰라 그러면 이쪽에서 썰라 썰라 그러면 도대체 알게 뭐예요. 교회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볼 때 자기네들끼리 방언으로 얘기하고 있으니까 미쳤다고 하지 않겠냐 그 말이죠. 또 하나는 뭐냐면 예언한다고 하면서 한꺼번에 예언하는 겁니다. 도대체 누가 무슨 말을 들으라는 얘기에요? 그것을 두고 하는 말씀이 너희는 적당하게 하고 질서대로 하라

는 겁니다. 그것을 두고 하는 말씀이 방언을 하려면 순차적으로 하여 방언할 것이요 다른 사람이 통역할 것이고 방언하는 사람은 있는데 통역할 사람이 없으면 공중 앞에서는 방언하지 말라, 예언할 때도 두 세 사람만 하고 너무나 많이 하지 말고 순차적으로 하고 다음 사람에게 예언이 임하면 처음 하던 사람은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그만 두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운행하실 때 질서와 적당하게 함으로써 유익을 주라는 것이었지, 오늘날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성령의 나타나심과 운행하심을 이 말씀을 가지고 꺼뜨리기 위해서 사용한 말씀은 전혀 아닙니다. 배경을 알아야 한다는 말이죠. 배경을. 그 다음에 이 분도 얘기 합니다. 거짓에 기쁨의 요소가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사람을 감정적으로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거짓된 감정을 부추기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찬양을 하더라도 우리가 주님 앞에서 기뻐 춤추며 하나님의 행하실 놀라운 일을 생각하면서 그 은혜가 감사고 감격적이고 기뻐서 춤추고 감사할 수는 있지만 예배의 분위기를 돋구기 위해서 억지로 춤을 추는 것 그것은 거짓된 의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옳지 않다는 겁니다. 정확하게 동의하는 바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감정주의죠. 감정과 감정주의는 다르다는 겁니다. 감정은 뭐니까? 우리 인간은 감정의 동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감정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너희가 기뻐하라 혹은 너희가 춤을 추며 찬양하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격적이어서 눈물 흘릴 수도 있고 기뻐 춤추며 찬양할 수도 있고 큰 소리로 주께 외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감정주의는 뭐냐면 사람의 감정을 불러일으켜서 그것을 이용하는 것이죠. 예를 들면 헌금을 하게 하더라도 하나님의 성령께 한 사람 한 사람이 반응을 보여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고 전적으로 동참하여 헌금하도록 해야지 적당하게 그야말로 사람들의 마음을 구슬려서 그들로 하여금 눈물 흘리게 하고 감정적으로 저들의 마음을 움직여 헌금하게 하는 것 그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것은 감정주의입니다. 그것은 삶을 이용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이 분도 ‘죽은 정통주의는 열심을 싫어한다’고 말하면서 이처럼 감정주의나 거짓된 감정을 가지고 이용하는 거짓된 기쁨의 의식은 배제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그것은 배제되어야 할 일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예배에 대한 이해, 이러한 그릇된 예배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죽은 정통주의에 빠져있기 때문에 열심을 싫어한 나머지 성령을 소멸하는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을 적당하고, 질서대로 하라고 말하는 것은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추구하는 것은 그것 밖에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한 나머지 ‘성령을 소멸치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분이 예배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우리가 진짜 볼 필요가 있습니다.

102쪽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배의 형태가 형식적이 될 때 성령께서는 덜 나타나시며, 여러분은 신약으로부터 더 멀리 떠나게 된다는 것을 언제나 주목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특별한 진리를 새롭게 아는 것이 우리 신앙이 아닙니다. 우리 신앙은 살아계신 인격적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렸을지라도 여러분의 예배가 형식적이 되어지면 한 번도 안 드린 것과 똑같습니다.

우리가 몇 번을 드렸든지 상관 없이 우리가 오늘의 삶에서 살아계신 인격체이신 하나님을 더욱더 알기를 열망하고, 그 분을 우리의 전존재로 사랑하기를 열망하고, 그리고 앞서 가신 주님을 따라 우리의 전존재로 동행하면서 그 분께 마음껏 찬송과 예배를 드리고, 그 분을 사모하고, 갈망하고, 예배를 통해서 그 분을 높이고, 그 분을 경험하며, 우리의 삶을 다해 그 분과 동행하는 삶을 산다

면 그것이 신앙이고, 그것이면 족합니다.

그 삶에서 모든 승리가 나올 것이고, 그 삶에서 모든 사역이 이루어질 것이고, 그 삶에서 모든 하나님의 생명을 경험할 것입니다. 그 이상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더 이상 무엇을 원하십니까?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많이 드렸을지라도, 그러한 삶이 우리에게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고 있지 않다면 우리는 잘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에서 잘못하고 있는 것이고, 주님과 관계에서 잘못하고 있는 것이고, 주님과 관계에서 잘못되어지면 우리의 삶의 어떠한 영역에서도 승리할 수 없습니다.

“예배의 형태가 형식적이 될 때 성령께서는 덜 나타나시며, 여러분은 신약으로부터 더 멀리 떠나게 된다는 것을 언제나 주목하게 될 것입니다. 신약 교회의 중요한 특징은 즉흥성, 생명, 살아있는 내밀성, 활력 등이었습니다. 그러나 성령과 그 감화력에서 떨어지게 되면 모든 것이 형식적이 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예배의 여러 형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침체기에 빠진 교회가 예배의식에 있어서 보다 더 형식적이며 예배 형식을 채용하여 공기도서나 의식서로 돌아가는 경향을 띠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형식적 종교의 한 부분입니다.”

그러면서 계속 이렇게 말합니다. 부흥회 때 그랬다는 것입니다. “어떤 의식이나 공기도서나 어떤 절차나 어떤 예복이나 옷을 차려 입는 그런 일이 전혀 없고, 다만 성령께 속한 자유와 성령으로 인해 일어나는 일들이 있을 뿐입니다. 사람들은 마음 속에서부터 찬양을 부릅니다. 각성과 부흥이 일어난 시기마다 바로 그러한 특징을 발견합니다. 교회가 부흥을 맞지 않을 때에 성가대를 강조하게 되고, 성가대를 강조하는 것 뿐만 아니라 돈을 주어 성가대를 사오기도 합니다. 또 성가대에 있는 독창자들을 돈 주고 사오기도 합니다. 그리고 회중들은 가만히 앉아서 듣기만 합니다. 성가대가 그들을 위해서 노래를 부릅니다. 이것은 성령을 소멸하는 것입니다”

50년 전에 영국이 그랬는데 오늘날 한국하고 너무 너무 비슷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사모함이 없으면 똑같습니다.

우리가 경배와 찬양을 드리면 그것이 올바른 예배인줄 아십니까? 아닙니다.

찬송도 경배와 찬양과 똑같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자세와 태도로 하나님을 사모하며, 하나님께 나 오느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떠한 마음의 자세와 태도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느냐는 것입니다.

예배는 우리가 드리는 찬양의 종류에 달려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성령을 소멸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모든 것을 적당하게 하고, 질서대로 하라고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은 그런 일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서 오늘 날 여러분은 교회 생활에 있어서 매우 두려운 성향을 띠고 있는 것이 프로그램이라는 것을 주목하셨습니까? 모든 것이 다 짜여져 있습니다. 어느 한 지점을 향하여 모든 일들이 행해져야 한다는 것을 저도 압니다. 그러나 분명히 우리는 성령을 소멸하는 위협에 처해 있습니다. 모든 항목이 이미 정해져 있고, 시간이 주어져 있습니다. 어느 시점에 시작하여 어느 시점에 마쳐야 하는 것이 다 되어 있습니다(주보를 말하죠). 목회를 하는 제 친구 가운데 어떤 이들은 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주일마다 다른 교회에 가서 순회 설교를 하면 할수록 이러한 일을 더 많이 발견한다는 것입니다. 복음적인 교회에서 마저 강사로 오는 목사에게 순서가 적힌 종이를 준다는 것을 저는 반복적으로 듣습니다. 그리고 그 문자 그대로 그 앞에다 그 순서지를 놓고 그대로 행할 것을 그대로 종용합니다.

11시에 시작합니다. 성경을 봉독하고, 거기 순서지에 적힌 모든 것을 다 진행하여 12시가 됩니다. 그러면 축도가 이어집니다. 제가 볼 때 이것은 아주 심각한 것입니다”

형식적인 예배를 말합니다. 왜요? 열심을 싫어한 나머지 이렇게 형식적인 예배를 참다운 예배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죽은 정통주의의 특징입니다.

말씀드린대로 우리는 순서를 정해 놓고 많이 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아니냐? 아닙니다. 우리도 마찮가지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과의 친밀함,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임재를 인식하는 것,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는 것, 우리의 삶을 조정하여 하나님의 행하심에 동참하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 여기에 초점이 맞추어져서 주님을 사모하고, 추구하고, 열망하고, 구하지 않으면 우리는 똑같이 죽은 정통주의에 순식간에 빠집니다.

왜냐하면? 지식이, 의식이 본질을 대체해 버린 죽은 정통주의, 율법주의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 속에 주님을 향한 열망을 새롭게 불 붙여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그저 주일날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좋은 일인 것 처럼 습관적으로 나오는 예배가 아니라 진실로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열망하고,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열망하고, 하나님 만나기를 열망하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주님을 뵈기를 열망해서 나오는 예배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그렇게 나온 분 몇 분이나 계십니까?

제가 보기에는 최소한 반 이상은 그렇게 나오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누가 누가 그렇게 한 것은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여기에 있는 분들이 그러한 마음으로 나왔더라면 우리가 드렸던 찬양은 절대로 그렇게 드러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사모함으로 주님 앞에 그렇게 나왔더라면 우리가 아까 드렸던 찬양은 그것 보다 훨씬 더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 하며, 하늘에 닿는 예배가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추구함으로, 하나님을 알기를 구하는 신앙의 본질로, 다시 우리들이 더욱더 돌아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사모하는 심령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